

산동성 바닷길 주역으로 '우뚝'

군산-석도간 새로운 카페리선 '군산펄호' 취항식 개최 2만톤급 규모로 여객 1200명·화물 228TEU 수송 가능

전북도는 군산-석도간 새로운 카페리선 '군산펄호' 취항식을 13일 군산항 국제여객부두에서 개최하고, 군산-중곡간 여객 3만명, 화물 6만TEU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 윤동욱 군산 부시장,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행안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새로 건조된 한중카페리 '군산펄호' 취항을 축하하고, 군산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을 기원했다.

'군산펄호'는 1989년 건조해 대구연한이 끝난 '스다오호'를 대체해 7월 1일부터 군산-석도(스다오)항로를 운항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건조한 카페리선 '군산펄호'는 600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조했고, 지난해 4월 투입한 '뉴스다오펄호'와 쌍둥이배이다.

'군산펄호'는 2만톤급 규모로 여객 1200명, 화물 228TEU를 실을 수 있고, 최대운항속도는 23노트로 군산-석도간 10시간 운항도 가능해졌다.

2008년 4월부터 주3회 운항 중이던 군산-석도간 카페리선은 전북도 군산시 및 지역자치권이 적극적으로 공조해 지난해 1월 제2차 한중해운회담 양국간 항차증편 합의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주6회 화물과 여객을 운송해오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18년 한해 여객 23만

7685명, 화물 4만4056TEU를 수송하여, 2017년 대비 여객은 29%, 화물은 18%가 증가했다. 2019년은 5월말 기준 여객 14만1900명, 화물 1만7645TEU를 수송해 지난해 동기대비 여객은 78%, 화물은 22%가 증가한 실적으로,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의 여객 34만명, 화물 6만TEU 수송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군산-석도간 카페리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군산항 발전에 큰 보탬이 되어, 참채를 겪고 있는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화물유치 확대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추가 항로개설 등 지속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이용이 불편했던 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개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교육·체험 우수 프로그램 선정

생태·지질자원의 우수성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역량 입증

전북 서해안권(고창, 부안) 국가지질공원의 신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전국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주최한 전국 지질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전북 서해안권 2개 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질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공모전은 지질공원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과 지질탐방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교육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운영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고창과 부안에서 각각 1개씩 운영될 예정이며, 선운산·채석강 등 관내 우수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이 포함되어 있다.

전북도는 지난 6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진안·무주를 비롯해 현

재 인증을 추진 중인 고군산군도(군산)의 교육·탐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는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 여러 경연대회와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오며 전북 생태·지질자원의 우수성과 지질공원 운영 역량이 전국에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9월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부터 생태·지질탐방 프로그램에 연간 5만여명이 참여해 지질공원 탐방 활성화 등의 인증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에 진행된 지질공원해설사, 체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입상해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높은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또, 올해 2월에는 취약계층 아동 대상의 '지오드림'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인증 획득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될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탐방객들에게 지질공원의 생태·지질자원에 대한 우수성을 각인시키고 자연유산의 소중함과 보전의식의 함양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질자원을 보전함과 동시에 교육자원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인증 획득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에도 기여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우수 교육·체험 프로그램 선정을 계기로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탐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올해보다 2.8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

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

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여름철 야생버섯, 함부로 먹으면 안돼요"

농촌진흥청, 독버섯 주의 당부... 소량만 먹어도 인체 치명적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름철 무분별한 야생버섯 채취와 섭취는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자생 버섯은 1,90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00여 종(21%)뿐이며, 나머지는 독성이 있거나 식용 가치가 없다.

야생 독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는 덩고 습해 버섯이 잘 자라는 7월부터 산행이 많은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독버섯이 식용버섯과 생김새, 서식지, 발생 시기 등이 비슷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우산광대버섯', '알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은 치명적인 균독소 아마톡신이 있으므로 잘 살펴야 한다. 알광대버섯 한 개에는 성인 남성 1~2명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양의 아마톡신이 들어있다.

독버섯인 흰알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은 식용 흰주름버섯과 모양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다. 성숙한 흰주름버섯의 주름살은 독버섯인 광대버섯류와 달리 뚜렷한 양자갈색을 띠며 대 아래쪽에 대 주머니가 발달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맹독성인 개나리광대버섯도 식용버섯인 노란달걀버섯과 구분하기 어렵다. 노란달걀버섯은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과 달리 갓 둘레에 뚜렷한 홈이 있고, 치마 모양의 턱받이가 담황색을 띤다.

잘못된 상식이나 민간 속설만 믿고 야생버섯의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 곤충이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식용 가능하다는 속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버섯을 섭취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이미 섭취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빨리 환자를 토하게 하며, 병원에 방문할 때는 정확한 진단·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공익식 과장은 "감증되지 않은 야생버섯 섭취는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느타리, 팽이, 영지, 표고 등 농가에서 생산한 안전한 버섯을 먹도록 한다"라고 전했다.

김윤삼 기자



체육특기자의 공정한 대학입시 위해 대학이 찾아간다

오늘부터 전국 5개 지역서 KUSF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 개최

한국대학교포츠협의회(회장 김창수, 이하 KUSF)는 오늘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2019 KUSF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인 36개 대학이 참가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전주를 시작으로 18일 강원, 20일 부산, 24일 서울, 8월1일 경기 지역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열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회차별로 8~12개 대학이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을 설명하고, 1:1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중앙대, 한국체대를 비롯해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36개 대학의 입시 담당자가 체육특기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입시 궁금증을 직접 해소해 준다.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하는 10개 대학은 별도의 사전 영상을 제작해 입시 정보를 안내한다.

'2019 KUSF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에 대한 회차별 참가 신청 방법 및 참가 대학 관련 세부 내용은 'KUSF 체육특기자대입포털'(info.kus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 전용 대입 정보 사이트로 대학별, 종목별, 전

형별 체육특기자 입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편, KUSF는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의 협의체로서 현재 102개 회원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체육특기자의 공정한 입시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입시 정보를 널리 공개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2016년부터 체육특기자만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기획, 개최하고 있다.

4년 차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특기자 입시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일본뇌염 예방접종·방제요령 준수 당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7월 둘째 주 모기채집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올해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뇌염 유행예방을 위해 4월부터 주 2회 전주 소재 우사에 유문 등(모기 유인등)을 설치해 모기종별 밀도를 조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 7월 8일에 채집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종 확인되었다.

올해 전북지역 일본뇌염매개 모기 첫

개체 확인이 작년 6월 19일에 비해 늦은 것은 작년보다 낮은 평균기온(심한 일교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적으로는 올해 4월 6일 제주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첫 발견되어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일본뇌염 환자 발생 등의 경우에 발령되는 일본뇌염 경보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뽕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입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김진성 기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 "전북지역에서 올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첫 확인됨에 따라, 야외 활동시와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하고, 아동의 경우 표준일정에 맞춰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